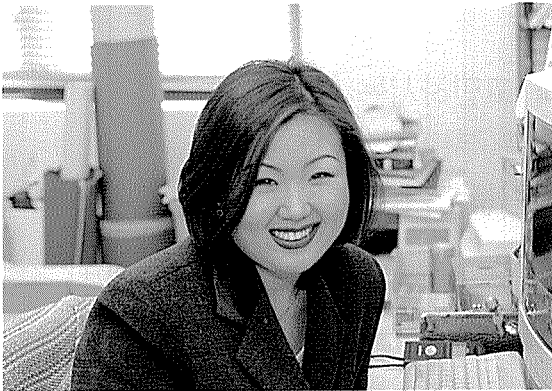


디자인이 있는 풍경 삼립유지 김성연

성공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남성 제과제빵반 수강생 서종성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3월의 어느날. 날씨 탓인지 김성연(25)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길이 짜증스럽기보다 오히려 약간의 흥분마저 불러 일으킨다. 마치 초등학생이 처음 봄소풍을 가는 것처럼. 이런 저런 상념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그를 만나기로 한 경기도 의왕시에 도착했다.

97년 2월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한 김성연씨는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공부를 더 할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삼립유지 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된다. 그의 같은과 선배였던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학교로 후임자를 의뢰해왔던 것이다. 그의 주요업무는 광고나 전단지, 카다로그를 디자인 하는 일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외근을 많이 하는 편이다.

“컴퓨터를 이용해 디자인을 하다보면 출력 등 외부적인 기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카다로그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나가야 할 때도 많은 편이죠.”

그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외근이 잦은 데다 들고 다녀야 할 짐이 많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번번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것이 싫어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을 과감히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래도 혼자 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혼자서 일하다 보면 자기 틀에 빠져 버리기 쉽거든요. 의논할 수 있는 동료도 없는 점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난 일년간 그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얼마 전부터는 한동안 발행이 중단됐던 삼립유지 사보 「밀알」을 다시 발행하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그동안 이뤄왔던 공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웬만큼 자신감이 생겨서일까? 그의 말 속에서 이전 제법 여유가 느껴진다.

취재 협조를 부탁하니 한사코 손을 내젓는다. “애기거리도 없는 사람을 취재해 무엇 하겠느냐”는 것. 한 일간지에 ‘IMF실업자 훈련과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연일 계속되는 취재진의 방문에 서종성(44)씨는 신경이 펴 날카로워져 있었다.

“수강생 중에 제과점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습시간 내내 여기저기서 후레쉬가 터지니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며칠전 한 신문사가 이들의 강의 모습과 함께 IMF실직자 대상 운운한 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서종성 씨 역시 여간 곤혹을 치른게 아니었다. 무엇보다 다 자란 아이들의 마음에 공연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껍이나 가슴을 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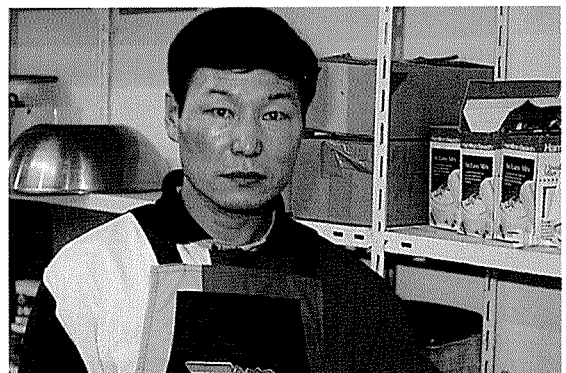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이 개설한 남성 제과제빵반 수강생은 총 13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이곳에 모였지만 양복차림의 나이 지긋한 중년 신사부터 스물 다섯살 안팎의 젊은이까지 연령층이 다양각색이다.

“제 경우엔 줄곧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 동안 여러가지 업종을 고려해 보았지만 그중 제과점이 꼼꼼한 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관리적으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터라 점포 운영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구요.”

평생 월급쟁이보다는 자영업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며 정든 직장에 사표를 낸 건 지난해 가을 무렵. 하지만 퇴사 이후 예상치 못한 IMF한파가 거세게 불어닥쳐 그의 창업 계획에도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소비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개업만을 서두르다 보면 그만큼 실패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지금 그의 일차적인 목표는 올 해 안에 제과제빵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처음엔 중년의 나이에 제과기술을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자영업으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자면 이만한 고생쯤은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제과점 개업은 기초기술을 충분히 쌓은 뒤에나 차분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익숙한 일이 아니라 그런지 생각보다 빵 만드는 일이 꽤 어렵네요. 어렵게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꼭 성공할 겁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홍송(紅松)치럼 웨스트 진 베이커리 김서영

‘웨스트 진 베이커리’는 지난해 11월 화정의 샐터마을 아파트 1단지 상가에 오픈했다. 외장을 홍송 원목으로 해서인지 붉은 계통의 은은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눈에 속 들어온다. 웨스트 진 대표 김서영 씨의 말에 의하면 수명은 5년으로 짧지만 시간이 갈수록 홍송의 은은한 색감이 살아나는 특징이 있다.

홍송 특유의 색감이 이제 막 살아나 듯 김서영 씨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구운 빵 향기를 샐터마을 아파트 단지에 전하고 있다. 이미 아파트 단지와 상가내에 소문이 자자한 서글서글한 표정과 곰상곰상한 성격의 김서영 씨는 미국 제과학교 출신이다. 한국에서 5년간 무역회사에서 근무, 퇴사, 94년 미국행, 97년 6월 영구 귀국. 이것이 그의 이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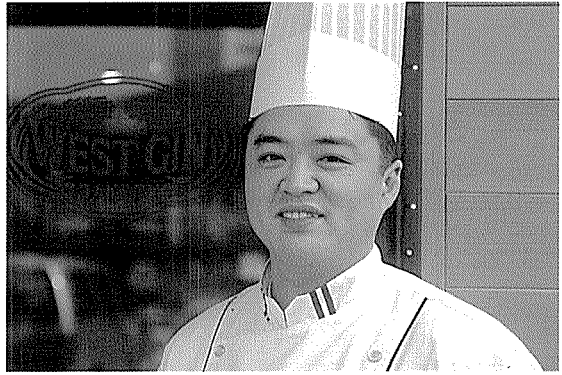
“전 어릴 적부터 만드는 것과 맛보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를 두고 미식이 기질이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가 무역회사에서 과장 자리를 마다하고 제과업을 택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만드는 것, 맛보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제과학교에서 그의 주특기(?)는 케이크 제작과 데커레이션이었다. 미국에서의 전공 덕에 그는 지금도 작은 장난감 모양의 재료를 이용해 바닷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크리스마스 등 테마별로 케이크 데커레이션을 기획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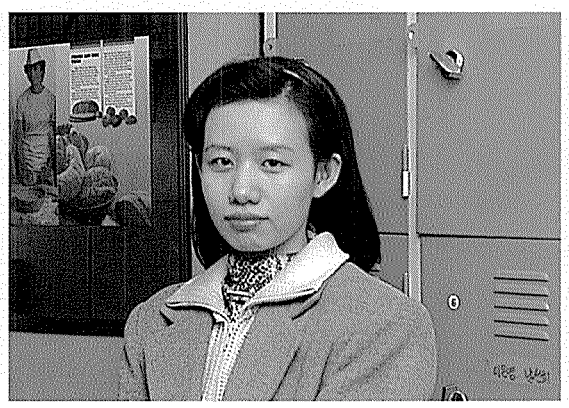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케이크 데커레이션의 기획뿐만 아니라 제품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 할 때도 늘 업계 선배들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현재 그는 공장장과 경영을 겸하고 있으며 매장관리와 판매는 그의 아내가 맡고 있다.

“아내도 제과학교 출신의 어엿한 기술인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저의 훌륭한 조언자이기도 하죠. 제과점 인테리어도 아내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컨셉을 짰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뜯어고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홍송이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처럼, 그리 길지만은 않은 인생길을 성실하게 걷고 있는 김서영 씨의 모습은 그의 홍송만큼이나 그윽한 색감을 발하는 것 같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대학 졸업하고 제과학원 등록한 이은경



취업대란의 한파가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도 대거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니 학교를 졸업한 예비 사회초년생들은 더 말할 것이 없을 터.

지난 2월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이은경(25) 씨도 그렇게 우울한 겨울을 보냈다. 졸업을 앞두고 이곳 저곳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빗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간신히 한 학습지 상담교사직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입사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처지가 한 없이 끔찍한 것 같았어요.”

은경 씨는 이 일이 있은 후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평소 제과제빵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터였다. 그는 동네의 단골 제과점 사장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기술을 배울만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김상업제과학원(강남 분원)을 소개받았고 6개월만에 등록했다. 학과 동기를 대부분 취업을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학사모를 썼지만 은경 씨는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듯 앞날이 그렇게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학원에 등록하고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있는 오후반 45명 중 85%가 대졸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학력파괴, 기술우위의 시대가 성큼 도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우선 6월에 있을 제빵기능사 시험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원을 수료한 뒤에는 일반 제과점에서 한 2 ~ 3년간 기술을 더 익히고 적당한 시점을 택해 직접 제과점을 운영할 생각이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의욕과 함께 불안을 동반한다. 불안의 실체는 항상 존재하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다. 이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의욕을 다스림 상기하면서 나온다. 은경 씨가 항상 ‘처음같은’ 마음으로 갖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박수가 필요할 듯하다.